

두루마리 양식에 담은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결합

두루마리 형식은, 특정 지역과 관계된 어떤 특별한 사건과 사연 혹은 세시풍속과 같은 다양한 삶의 모습(이는 결과적으로 그림 속에 인물과 사건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을 기록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창안된 형식이다.

아마도 사건을 수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양식을 실험해 본 결과, 이런 펼침 형식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은 각각의 풍속을 한 화면에 재현한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아무튼 두루마리는 사건이나 풍속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보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았고 지금까지 전승된 장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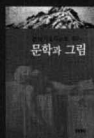
두루마리 형식의 현대적 계승으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안에 샤를 5세 홀의 벽면을 장식한 일랑 이종상(一浪 李鍾祥, 1938~)의 〈원형상 97061-마리산〉을 들 수 있다. 이름하여 뒷비침 장지벽화인 이 작

품은 길이 70미터, 높이 6미터의 다지에 그린 대형 벽화다. 장지를 두루마리처럼 펼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두루마리 양식의 예로 들기에 무리가 없다. 일랑은 다지의 배후에서 조명을 은은하게 투사하는 기법을 통해 그림 주제를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벽면과 묘한 조화를 이룬 다지는 나와 타인, 자연과 문명, 객체 오 주체를 소통시키고 차단하는 상



《문화기호학으로 읽는 문학과 그림》
조용훈 지음 | 효형출판
304쪽 | 값 18,000원



문학과 그림이라는 장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고찰한 책이다. 두 장르가 주고받은 소재와 발상법 두 장르를 담당한 예술가들의 비평적 교류가 낳은 작품의 양상 등을 살피고 있다. 또 두 장르의 구조적 상동성(相同性)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그림 속의 서사성, 문학 속의 회화성을 함께 읽어낼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정적 비유다. 닥지의 반투명은 빛에 의한 것이니, 빛은 물리적이지만 내포는 이처럼 서정적이다. 배면 조명은 은은하게 반투명을 유지하는 비침 방식이어서 닥지의 형상이 신비하게 살아난다. 그런 점에서 서양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명징하고 선명한 색채와는 차이가 난다. 닥지의 배면 조명은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된 우리의 창조지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그러나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통찰한 것이다.

틈새는 용서와 관용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화가는 벽면과 닥지 사이의 틈새를 우리 고유의 방식의 방식인 배면 조명을 사용해 은은하게 채우면서 화해와 관용을 도모한 것이다.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이 과거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이끈 셈이다. 그는 “관객들은 프랑스의 성벽이 극동함대의 포격을 맞아 무너진 강화 성벽으로 도치되고, 강

벽의 성벽 너머로 마니산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 문화의 결합, 2000년대를 이끌 새로운 문화 비전의 창조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요컨대 불운한 과거의 상처가 장대한 스케일로 재현되었다고 할까.

|180-184쪽|